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2024년도 변함 없이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함을 먼저 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국도 많이 춥고 어려움이 많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네팔에서 사역한지 20년이 넘어가면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사역을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역을 하였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훈련받고 할 수 있다는 마음만 가지고 2004년 7월6일에 남편선교사와 두 아들(동현, 동훈)과 네팔에 와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다 잘 할 수 있을 꺼야 하면서 하는데 쉽지 않은 일들 어려운 일들 기쁜 일 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믿고 지금껏 기도로 후원으로 여러 모양으로 함께해 주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아가페가족을 아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두아들은 네팔에서 고3까지 학업을 마치고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네팔에 와서 언어를 배우기 위하여 학교를 다니고 시장에 가서 네팔 아주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언어를 배우고 친해지면서 문화를 익힌 것이 어제 같은데 20년이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지진도 겪고 코로나도 겪으면서 성장이 되어가는 저희 가정과 네팔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일 하시 고 계심을 다시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네팔은 이제 저희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이곳에 왜 보내주셨을 까 살아갈 수 있을까 일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근심 염려가 많았는데 하나씩 이루시고 계시는 멋진 하나님께서 행복합니다.

2023년 12월4일에 아가페 교회안에 탁구교실(Hopes Table Tennis Academy)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지고 방과 후 공부 반 아이들도 와서 공부할 수 없는 시기에 탁구선수로 운동을 하고 있는 영이가 네팔 육군팀으로 들어가면서 육군소속 코치가 영이를 가르치면서 아가페 교회안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꿈나무들을 양성할 수 있는 탁구 교실을 하면 어떠냐는 제안과 코로나로 인하여 외국인들이 전도할 수 없도록 사방에서 조사를 하고 주시하는 시기에 자연스럽게 탁구를 통하여 전도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1년이 되고 첫 토너먼트 게임도 하면서 학생선수100명 시니어선수들 40명모두 140명이상이 모인 가운데 대회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 분들과 탁구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네팔을 향하여 일하시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탁구 유망주들이 배출되며 선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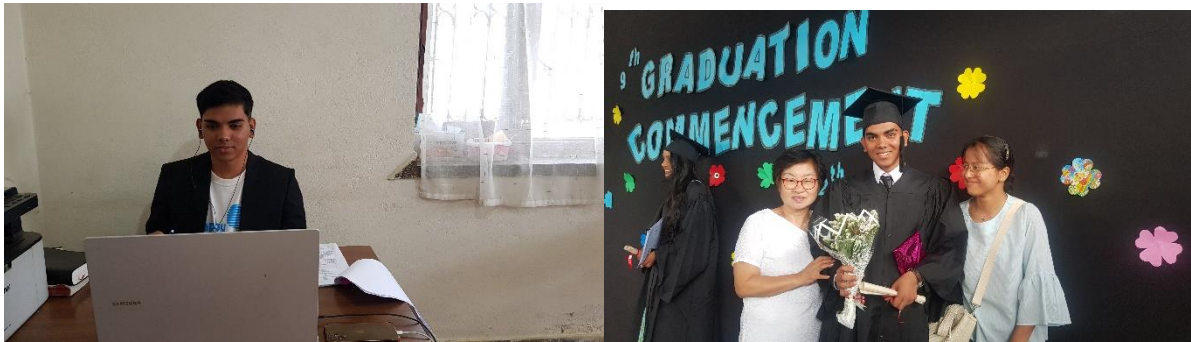
저희 아가페 방과 후 공부반을 통하여 성장한 네팔 학생들이 일도 하고 결혼도 하고 각 처소에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행복합니다.

저희 가정안에서 자라나고 이는 아이들이 이제 청년으로 자라나면서 열매가 맺기 시작 함 을 알게 해주시는 멋지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팔에서 13일만에 만난 첫째 아들 이삭이가 고3을 졸업하고 올해 한동대 글로벌 대학에 100% 장학생으로 합격을 해서 비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자랄까 했던 아들이 청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하여 적응도 하여야하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오직 예수님 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삭이가 되길 소원합니다.



남은 동생들도 이삭이처럼 주님안에서 잘 자라서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길 소원합니다.

2024년성탄절 예배는 연합으로 아가페에서 예배를 드리고 섬길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10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넘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멋지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2024년 마지막 성탄절예배를 함께 드린 네팔성도님들께서 2025년에도 주님만 바라보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가페 아이들이 고3 고2로 자라나면서 열심히 공부하여 이삭이처럼 대학에 가서 열심히

히 학문을 익혀 네팔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소원합니다.

2025년 사역

탁구교실(Hopes Table Tennis Academy)에 오시는 학생들 어른들이 좀더 넓고 편안한 공간에 오셔서 마음 것 즐기고 선수들도 배출되면서 저희들이 예수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넓히려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새벽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낮에는 네팔 선수들이 이용을 하며 오후에는 꿈나무들이 훈련을 받고 새벽에는 동네 어른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좁아서 가끔은 벽에 부딪히기도 하며 공이 천장을 맞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계획은 지금 있는 공간이 협소해서 옆에 남은 마당을 이용하여 넓히면 좀더 실내가 혼잡하지 않고 선수들도 편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선수들을 방문하게 해서 함께 훈련도 하고싶지만 공간이 협소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선수들도 배출하는 것이 큰 일이지만 이곳에 오시는 힌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봉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어가면 네팔에서는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것 보다 더 빨리 예수님을 스스로 궁금하게 하여 이야기 나누고 자연스럽게

말씀을 전하며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탁구교실 되도록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영이가 탁구선수로 훈련을 받고 학생들을 돕지만 장차 저희 아이들이 탁구를 통하여 네팔의 어둡고 힘든 세력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인으로 선수들이 성장하길 소원합니다.

탁구교실을 넓히기 위하여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탁구사역이 네팔에서 필요하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 하시리라 믿고 2025년 사역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주시고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하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1. 네팔에 위정자들이 좀더 네팔인들이 살아가기 좋은 나라가 되는데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2. 이삭이가 비자를 받는 서류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비자를 잘 받아 한국 한동대 글로벌대학에 가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만나고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3. 2025년에도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역들이 주님께서 주관하시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도록

4. 함께 협력하고 있는 네팔 코치들과 스태프 들이 한마음이 되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 하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가페를 방문하고 탁구교실에 오시는 모든 현지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5. Hopes Table Tennis Academy 탁구교실 하는 곳 남은 공간을 이용하여 확장할 수 있는 재정이 채워지도록
6. 아가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찾으며 사랑과 지혜와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멋진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7. 아가페 사역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채워지도록
8. 지금껏 변함없이 믿어 주시고 사랑으로 후원으로 기도로 함께 협력해주시는 분들에게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크나큰 축복이 임 하 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5년 1월10일

장 언순 고 연희 선교사 올림